



예배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가 6:6-8

2026년 9월 27일 · 일요일 · 제26-39호

주일오전 11시

울산시 동구 등대3길 40 301호 · kim@ivx.kr · wymv.kr

예배 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01	찬양	이정호 집사
02	통성기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
03	성경봉독	미가 6:6-8 다함께
04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김문종 목사
05	결단찬양	"은혜" 다함께
06	통성기도	순종과 결단의 기도
07	축복송	너희 가는 길에 다함께
08	축도	김문종 목사
09	광고	인도자
10	식사교제	다함께

알립니다

예배교회 홈페이지가 임시로 오픈했습니다. 보시고 수정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6)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보다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하는 척 하는 것 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모습도, 대단한 성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아주 단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영혼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혼 품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을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 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최○○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